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오늘은 맥추감사절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예식, 저녁에는 맥추감사 찬양예배 및 흥해작전 승전감사에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출23:16)

오늘은 맥추감사절 주일로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풀어주신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출23:14-19)에 따라 이 날을 기억하며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려야겠다.

특히 올해는 유래가 드문 90년만의 긴 가뭄으로 전국이 목말라하였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절실히 느껴진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

이 더욱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이에 따라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 저녁 찬양예배 시에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의 감사 찬양순서도 마련된다. 한편 오늘은 2001년도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주일이다. 남은 6개월도 알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신년 초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잘 이루어왔는지도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도록 한다.

사랑의 헌혈 및 각막 기증식

우리 몸에 여유로 갖고 있는 피를 나누어 피가 모자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헌혈행사가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5시30분까지 102호 사랑부 실에서 실시된다. 고등학교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헌혈이 가능하고, 혈액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헌혈 행사와 함께 항상 어둠에 살고 있는 시각 장애인에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가는 육신 중 일부인 각막을 기증하여 광명을 주는 「각막 기증식」도 함께 거행한다. 소명이 있는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증식에 참여하기 바란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 임하소서 성령이여! 』 주제로 -

우리 교회는 올 여름에도 각 교회학교 별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다. 올 여름 행사의 주제는 교회의 올해 표어인 「임하소서 성령이여!」와 동일하며 각 교회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성령을 만나 은혜 충만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선물하자.

◆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일정 ◆

부서	강사	장소	일시
유치부	이중윤 목사,	교회	7/23(월) ~24 (화)
유년부	이중윤 목사,이영희 전도사	교회	7/23(월)~24 (화)
초등부	이중윤 목사,신미숙 목사	교회	7/23(월)~24(화)
중등부	이중윤 목사,이태훈 전도사, 이규정 목사	산음 자연휴양림	7/23(월)~25(수)
고등부	이중윤 목사, 이태훈 전도사	산음 자연휴양림	7/26(목) ~28(토)
대학부	이중윤 목사, 정윤돈 목사	치악산 관광농원	7/16(월)~19 (목)
청년부	이중윤 목사,고경선 목사	치악산 관광농원	7/16(월)~19(목)
새가정부	이중윤 목사,이규정 목사	치악산 관광농원	7/15(주)~17 (화)
장년1부	이중윤 목사	치악산 관광농원	7/17(화)
사랑부	이중윤 목사	교회	7/17(화)

단기선교팀 기도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입당감사 10대행사중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로 태국 치앙마이로 파견하는 단 적극적인 기도후원이다. 이제 남은 기 선교팀의 파송일이 한달 여 앞으 한 달 여의 기간동안 우리성도들은 로 다가왔다. 선교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선교팀을 위해 선교지에서 은혜 가운데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다시금 꺾으며 생활하며 교회를 짓고 시작하여야 한다. 또한 선교팀이 선민을 전도하게 된다. 그 동안 선교팀 교지에서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도 무장하고 교육으로 현지지 록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식을 쌓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인에게로 보내리라”

신학교 건립을 위한 공산권 현지 답사

우리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던 신학교를 공산권에 세우게 되어 현지를 답사하고 기도를 하여할 사명이 주어졌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본 교회 이중윤 목사와 장로들이 중국에 들어가 현지를 답사하고 그 곳 관계자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번의 모든 현지답사 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신간 안내

이중윤 목사의 신간 서적 '사도행전'이 출간되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컫는다. 저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신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고 복음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변치 않는 교회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고 저자 서문에서 말한다.

이 책은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는 메세지 형식을 취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가격은 16,000 원이며 판매는 1층 서점에서 하고 있다.



이번주 이모저모



6월 새가족 환영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바다부 수확교실 수료식 및 수화로 드리는 찬양

이사야서 강해

바벨론의 붕괴

(이사야 47:1 - 15)



이중운 목사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 이사야는 4가지로 지적합니다. 바벨론 멸망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에 젖어있었다

고대인들은 성읍을 가끔 여성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대성읍 바벨론을 방자하고 사치스러운 고급 매춘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다가 결국 천한 노예로 전락한 한 것을 보여줍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2절). 바벨론이 높은 자리에서 고상한척하며 사치를 하더니 결국은 맷돌을 가는 천한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사치를 했습니다(8절).

"굽고 아리따다"(1절),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2절),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3절), "그러므로 사치하고"(8절).

향락은 국가의 심장부를 쪼먹습니다. 향락은 용기와 인내의 덕성을 파괴하고 신체를 퇴폐케하며 사람을 폐물로 변질시킵니다. 또한 사치와 향락은 음란을 낳습니다. 질개가 꺾이면 방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사치와 향락은 사람은 나태하게 하고 술 취하게 합니다. 대제국 로마도 사치와 교만으로 인하여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 사치가 만연되어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2. 바벨론은 교만과 잔인함의 모형이었다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7절). 바벨론은 자신들이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8절)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교만한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8절), 이것은 침략을 받아 비애와 고난 당하는 날이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은 교만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퇴했고 나태와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잠 16:18). 민족도 국가도 개인도 사회도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네가 그들을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땅을 심히 무겁게 매우며"(6절). 교만한 바벨론은 또한 잔인했습니다. 잔인성은 사치와 함께 국가를 망하게 하는 독소입니다.

또한 잔인성은 지배계급과 백성을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후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외국인에게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슌 3:1),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나 3:1).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에게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고통을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당하도록 하십니다(렘 51:24, 35-36). 만일 자신이 당하지 않으면 자손이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멸망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 바벨론은 망령된 미신을 섬겼다

바벨론은 부주의와 교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허세를 부렸고(슌 2:15), 교만하여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약자에게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기만의 우둔성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10절). 무수한 사술(마법)과 많은 주문(부적, 모략)으로 재앙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일은 헛수고였습니다(9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미신을 가르치는 자들은 초개같이 불에 타서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무역하던 외국인들도 각기 갈 곳으로 가므로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 높은 자리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극도로 낮아지는 때가 오는 법입니다(1-5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 빨리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치게 벌하는 잔인한 자는 그 자신이 벌을 받게 됩니다(6절).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능욕하는 자도 이와 같이 보을

을 받게 됩니다.

(3) 자기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안전보장인 줄 아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자입니다. 이 같이 극도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자기 생각과 정반대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8, 9절).

(4) 악인은 그 행하는 악을 의지하여 잘 되려고 합니다. 이는 질병을 취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 같은 어리석음입니다(10절).

(5)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보는 자가 없는 줄 알면 예상 밖의 화를 받습니다. 이런 화는 오는지도 모르게 옵니다. 우리가 죄를 찾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고 나중에는 죄로 인한 화가 오게 됩니다.

"네가 많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고도"(13절). 바벨론은 살길을 찾아 점성술에 취했으나 해결함을 받기 보다 절망에 빠져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의욕이 상실되고 가난해져서 망하게 됩니다.

모든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치와 향락은 교만과 잔인함을 가져옵니다. 결국 교만과 잔인함은 총명을 흐리게 하므로 미신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아 모든 미신을 불러내어 구원을 청하여 보라'(12-15절). 바벨론은 건국 초부터 우상숭배와 점술이 성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짓된 것을 좋아한 이들은 극도의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미신을 가르치는 자들은 초개와 같이 불에 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위하여 노력하던 자들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무역하던 외국인도 갈 곳으로 가므로 바벨론은 망하여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13절).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우상과 제단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실패만 반복합니다. 반복된 실패는 절망뿐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사치하지 않으며 열락에 빠지지 않고 잔인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과 신학의 기초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축복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1 홍해작전의 성공비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목회자들과 전 세계를 또 하나의 교구로 삼아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세미나를 복음과 선교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오며 그 명성이 한국 기독교계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서울교회에서는 매년 6월6일이면 어김없이 홍해작전이라는 새벽기도집회가 전개된다.

김치세미나에 참석하는 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참석하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는다는 서울교회의 홍해작전은 과연 어떤 새벽기도 집회이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새벽부터 씬 없이 몰려들고 서로 기쁨을 나눌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일까?

▶ 전 교인이 참여하는 새벽기도 운동

6월25일 월요일 오전 4시30분 경. 홍해작전이 시작되고 20일째 되는 마지막날. 20여 일간의 긴 장정으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으로 참여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 선입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새벽부터 지하 주차장에는 승용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5시부터 시작하는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본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교회 본당 1층이 순식간에 채워진다. 대략 눈짐작으로는 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홍해작전 참모부의 최종 집계 결과는 705명이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물론 부부 동반한 30~50대들이 대부분이고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 중, 고등부 학생들과 대학, 청년부의 젊은이들도 눈에 띈다.

여성들과 노인들이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벽기도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전 교인이 참여하는 새벽기도 운동. 이것이 바로 서울교회 홍해작전인 것이다.

▶ 크고 작은 기도응답의 체험

작전기간 평균 출석인원이 500여명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20여일 동안 매일 500여명의 교인들이 대치동 일대의 새벽을 밝혀온 것이다. 교회가 위치한 강남일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대의 성도들도 거리를 마다 않고 이른 새벽 찬 공기를 헤치고 교회로 달려온다. 교회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사는 교인들 중에는 전날 밤에 미리 교회내의 사랑부실(홍해작전 기간 중에만 임시 개방한다.)에서 묵었다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숫자도 수 십 명에 이르고 청년부의 GBS 게시판에는 매일 홍해작전의 새벽예배 설교가 요약되어 올라오고 이제 7개월 된 유아부의 영아가 홍해작전 20일내내 하루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는 기도응답을 받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IMF 당시 각 교단의 집계를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당 건축 중에 있던 전국의 2천여 교회 중 다수의 교회가 부도위기에 몰렸으며 결국 부도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던 혹독한 상황의 IMF라는 암울하고 지리했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서울교회가 교회건축을 이루어 내고 감격의 입당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홍해작전을 통해 건축현금에 대한 성도들의 부담감 해소



와, 건축 중에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과 비전으로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서울교회는 이미 새벽기도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도응답의 체험을 한 것이다.

▶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메시지가 있는 설교

요즘 대부분의 대도시 교인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 예배를 연극이나 영화 관람하듯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 안에서 구경만 하고는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그들을 새벽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새벽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내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그 한가운데에는 당회장 이종운 목사가 있었다. 성경공부를 겸한 홍해작전의 새벽예배 시작 전 이종운 목사는 본당 맨 앞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린다.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앞에서는 교인들이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구경꾼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도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기도가 계속될수록 더욱 간

절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어 이종운 목사에 의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는 교인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예배 시작 전 본당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어느 교인에게 왜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말씀의 소중함과 살아 계심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종운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일까. 교인들이 왜 한결같이 이종운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일까.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신학자이기도 한 이종운 목사는 성경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한다.

"사랑"에 대한 그의 설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신학적으로 계시의 progressive(점진성)에 의거하여 역사가 발전하면서 계시는 더욱 확실해지고 커진다는 관점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설교한다.

창세기에서 표현되는 사랑이 호세아서의 사랑과 요한복음에서의 사랑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설교한다.

이를 교인들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Drive-In(주입)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살아나는 것이다. 즉 그의 설교에서는 성경을 주석 하는 것이 아니고 Application(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말씀이 현실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

▶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교인들

이에 더하여 Ardent Prayer (열렬한 기도) Biblical Preaching (성경적 설교) Consistent Program (일관성 있는 사역)의 ABC 3P로 명쾌하게 설명되는 이종운 목사의 목회철학은 교인들을 대부분 교회생활중 한 부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러한 교인들의 네트워크와 조직에서 파생되는 강력한 힘이 구제와 선교에 집중되고 있으며 서울교회를 생동감 있는 활기찬 공동체로 만들고 또 다른 측면의 홍해작전 성공 요소를 만들어 낸다. 매일 수 백 명이 모이는 홍해작전의 진행과 관리를 위해 홍해작전 시작 2개월 여 전에 참모부가 설치되며 기획에서 홍보까지 군 작전을 방불케 하는 세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팅이 된 기도카드가 준비되고 예배 후 곧바로 출근하는 교인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며 일자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 요소 요소의 인원 배치와 운용 계획등 홍해작전 참모부의 치밀함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리라 그리 어렵지 않다. 일반 성도들보다 최소 한시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주차정리를 하는 남성 교인들, 교회 본당 입구에서 안내하는 남녀교인들과 찬양대원들 식당봉사자들 어느 한곳에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무슨 교회 행사든 수년간을 넘게 이어지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교회의 교인들은 10년째 지속적으로 홍해작전을 통해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으며, 그들은 올해에도 험한 물길에 넘실대는 홍해를 건너 승리의 주님을 만나 승전가를 불렀다.

경로대학의 학생과 교수님 암은의 권사(7교구)

이번 봄에 시작한 제2기 살롬 경로대학도 어느덧 열 번째 강의가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학생이라 칭하며 선생님을 교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노년의 경로대학 밖에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것이다.

살롬 경로대학에는 컴퓨터반, 원예반, 에어로빅반, 노래반이 있는데 머리아한 할머니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직이며 주기도문을 치는 모습은 요즘의 X세대 부럽지 않았다.

에어로빅 하시는 할머니들은 더더욱 대단하다. 발을 짹짹 울리며 온 몸을 힘있게 흔드는 모습은 숨어있던 젊음과 정열을 발산하는 젊은 모습이었다.

또한 노래반에서는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동서끼리 만나 형님 아우하며 열싸안고 우는 놀라운 해후도 있었다.

강의 마지막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는 장로님의 말씀에 다음 학기에는 영어반을 만들어 달라는 수준 높은 요청도 있었다.

아무튼 일주일마다 한번씩 만나서 예배와 찬양 말씀을 그리고 많은 수고와 갖든 맛있는 점심, 오후에 가지는 과외활동을 통하여 황혼의 시간이 활기차고 보람있게 변해왔다. 가을학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오셔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

서울주부대학을 마치며 현기옥 집사(1교구)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생활윤리를 터득하여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서울주부대학이 4월10일 이종운 목사님의 크리스찬의 가정윤리로 뜨겁게 시작된 지 10회 째로 6월19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쉬운 종강을 하게 되었다.

1부 강의가 끝나면 2부에서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별활동 부서의 일원이 되어 취미도 살릴 수 있어 새로운 도전의 기회였다.

더욱 좋았던 것은 매시간 기다려졌던 훌륭한 강사들의 명 강의였다. 그 동안 많은 교양강좌를 접해보았지만 주부대학에서 배운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의 모임이었기에 공감하며 더욱 그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탤런트 정영숙 집사님의 신앙간증, 최창모 교수님의 유대인의 자녀교육, 5월22일 비 때문에 실내에서 가진 야의 수련회, 심상권 박사님의 건전한 자녀교육, 박영신 교수님의 여성의 여가선용과 봉사활동 등 여러모로 가치있는 훌륭한 강의였고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

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에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한다. 이제 주부대학을 마치면서 좀더 변화된 삶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가정의 과수꾼이 되고자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도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수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을 의지하면 잠시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망을 할 뿐임을 우리는 알기에 가을학기에 시작되는 2기 주부대학에도 더 많은 주부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 드려본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내가 만난 서울교회 박정자(2교구)

둘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해 봄 우리 가족의 상경은 이사가 아닌 이민과 같은 것이었다. 찬란한 뉴 밀레니엄의 벽두에 남

편은 26년 직장생활을 접고 사업가로 변신했고, 어느덧 오십대에 들어선 나는 이곳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전의 친근하고 편했던 생활을 떠나 모든 걸 새롭게 쌓아나가야만 하는 상황- 그것은 우리가족에게 시련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나름대로 현실적응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생인 작은아들이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보는 나의 마음을 얼마나 좋이게 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루속히 우리 가정에 임할 것과 섬길 교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 드렸다.

첫째, 주님이 참 주인이 되시는 교회, 둘째, 스타 목사님보다는 신실하고 은유한 목사님, 셋째, 교인 한사람 한사람이 존중되는 지나치게 크지 않은 교회를 주실 것을 소원했다. 그리고 6개월 후,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직책이나 자기 과시적인 봉사나 무례한 자기 주장이나 과다한 프로그램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인들이 있는 서울교회. 영혼에 호소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듯 절제된 언어로 바르고 엄격하게 열정을 다해 가르치시되 늘 맑고 은유하신 목사님이 계신 서울교회. 이 아름다운 서울교회 식구가 된지 5개월째, 요즘 우리 가족은 매 주일마다 작은 심령부흥회를 맛보며 한없이 즐겁다.

특히 감사할 것은 작은아들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은 점이다.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학생회 활동과 취미생활, 고등부를 통한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이며, 공부에도 열심이다.

그 동안 나는 아들이 매주일 9시 가족예배에 참석하여 에너지를 공급받고, 고등부 시간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 받는 것을 보았다. 예배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아들은 흔들리던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은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진지하고, 언제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우리 아들들의 영혼에 각인 되어 언젠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멋진 남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믿는다.

또한 나는 가족예배 시간이야말로 차츰 황량해 지기 쉬운 큰 교회의 단점을 보완하고, 초대교회처럼 아기자기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가정의 결속과 문제 해결을 원하는 가정들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으리라 확신한다.

그 동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 응답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섬세한 손길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목사는 7월2일(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하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
- 김선일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6월28~7월8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 이영조 집사 (11 교구) 쌍용양회 상무로 승진
- 김정두 집사 (3교구) 분식점 베다니 개업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승영강 권사 장효옥집사 가정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여름철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안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